박재완의 포토 색즉시공

고뇌

'오늘'이라는 시간이 모두에게 주어진 듯하지만, 모두가 오늘이라는 시간의 온전한 주인은 아니다. 삶은 여전히 어려운 숙제이고, 일가를 이루는 일이란 기약이 없는 것이어서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가깝고도 먼 시간이다. 더 자랄 것이 없어 보이는 나무도 오늘 또 자라고, 인간의 발밑에 놓인 돌들의 빛깔도 오늘이 또 다르다. 여법히 오늘에 닿아 있는 것들과 하루하루 이루며 서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의 고뇌이다.

글 · 사진=박재완 사진작가





신현득 작가의 동화 팔만대장경

⑤ 지옥 탐험, 지옥 벌레 관찰

남에게 지옥 선사한 자… '지옥벌레'가 되다

놀라운 연구열을 가진 불교도 곤충학자 이춘원 교수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지옥 탐험을 하며, 지옥의 벌레를 관찰하러 나섰습니다.

먼저 팔만대장경의 일부, 〈정법염처경〉 지옥품 전11권을 여러 번 읽고 지옥에 대해 충분한 공부를 했지요. 공부를 마친 이춘원 교수는 "팔만대장경은 놀라운 가르침이다. 지옥에 벌레가 수두룩하다는 것까지 밝혀 두었으니" 하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지옥을 어떻게 찾아가려는가?"

친구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우주에서 지옥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이는 딱 두 분일세. 지옥중생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지장보살과 부처님 십대제자 중 신통제일 목련존자야. 두 분께 연락과 부탁을 해 뒀네. 〈지장경〉, 〈목련경〉도 충분히 읽어 뒀지. 혼자는 심심할 것 같아서 내 제자 김법수 군을 같이 가자고 했네. 불교학생회 회장이거든."

지옥을 다녀와서 〈지옥 벌레 전시회〉를 가질 거라는 얘기도 곁들였습니다. 지옥 벌레는 인연으로 벌레의 몸을 받았기 때문에 채집을 해 올 수는 없지만 관찰은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채집도구는 두고, 카메라와 지옥에서 입고 다닐 옷만 준비했습니다.

이 교수와 법수 학생이 철위산으로 둘러싸인 지옥문에 이르자 무서운 모습을 하고 지옥문을 지키는 말머리 마두나찰, 쇠머리 우두나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지옥문지기 나찰은 쾅쾅 울리는 소리로

"지장보살님, 목련존자님 명령을 받아 뒀습니다. 지옥문을 열어드리죠" 하고 높고 큰 지옥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지옥 속에서 지옥 죄인들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먼저 찾은 곳은 뜨겁기로 이름난 대초열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장, 목련으로부터 신통력을 얻어 두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알맞은 온도였습니다.

아우성이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죄인들은 구리쇠가 액체로 녹아 있는 뜨거운 구리쇳물에 삶기는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구리쇳물 속을 헤엄치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여기저기에 보였습니다. 구리 빛깔에 손가락 크기의 구리벌레였습니다. 그 모양이 질겁을 할만큼 흉했지만 교수와 학생은 카메라를 들어 찰깍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벌레들은 구리쇳물에 삶기는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아이 뜨거, 뜨거! 아이 따가, 따가! 아이 아파 아파!"

뜨거운 구리쇳물에 삶기는 지옥 죄인들이 구리벌레에 뜯기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놀랍고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지옥은 무섭고, 끔찍하다. 지옥 죄인이 가엾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옮겨 갔습니다. 몸에 털이 숭숭한 풀쐐기 모양의 벌레가 구물구물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는 기관충(機關蟲)이라는 지옥 벌레예요."



그림 · 강병호

기어다니는 벌레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 벌레가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전생이 모두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벌레를 많이 죽인 죄갚음으로 지옥 벌레가 된 것이라 했습니다.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갔습니다. 죄업의 갚음 때문에 자기 몸을 태워 둘레를 밝히는 지옥의 개똥벌레가 있었습니다. 찰깍 사진을 찍으면서, 지옥은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 죄인이 가엾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갔습니다. 80종류의 벌레에 뜯기면서 신음 소리를 내는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전생인 인간 세상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몸뚱이에 바글바글 벌레 투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가려워!"

죄인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벌레에 뜯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면서 견뎌야 죄갚음을 다하고, 지옥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80종 지옥 벌레를 찰깍 찰깍, 사진에 담았습니다.

다음 지옥으로 갔습니다. 죄업의 갚음으로 벌레의 몸을 받은 80종의 죄인이 80종의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터럭이 숭숭한 모충(毛蟲)이 말했습니다.

"전생에는 사람이었지요. 죄를 짓고, 지옥에 와서 벌레의 몸을 받아 이 고생입니다. 언제 이 지옥을 면할지…" 모충은 모과풍(毛過風)이라는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몸뚱이가 까만 흑구충(黑口蟲)은 수시풍(隨時風)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벌레 몸 된 것만 해도 고통인데, 이 바람이 천배 만배의 고통을 주네. 아이고, 아이고!"

벌레 몸을 받은 죄인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모양이 이상한 무력충이라는 벌레는 몽견란풍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대력작충은 불인풍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벌레 몸을 받은 80종 죄인에게 고통을 주는 바람은 각각 이름이 달랐습니다.

알고보니 여기는 벌레의 지옥이었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찰깍 찰깍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지옥에도 벌레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징그럽네요, 선생님!"

"그렇군. 무슨 이렇게도 다리가 많을까?"

교수 학생이 같이 놀라고 말았습니다. 100개의 다리를 가진 지네 모양의 벌레였습니다.

"우리를 백족충(百足蟲)이라 하지요. 100가지 죄를 짓고 이런 몸을 받았어요."

벌레가 뉘우치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죄 중에는 부모님께 불효한 죄가 제일 크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지옥에서 수많은 지옥 벌레를 만났습니다.

"지옥 벌레에는 죄지은 지옥 사람들을 괴롭히는 벌레와, 자기 죄업 때문에 지옥에서 벌레 몸을 받은 것이 있군. 어느 것이나 징그럽고, 흉한 꼴이야."

방학 한 달 동안 지옥을 돌아보고 지옥문을 나오며 이춘원 교수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생은, 죄가 무섭고, 지옥이 무섭다는 걸 깊이 느꼈습니다.

